

유틸렉스, 공모주 청약 경쟁률 322.96대 1 기록!

- ▶ 14만 5,400주 모집에 총 4,695만 8,460주 몰려... 청약증거금 약 1조 1,761억 원
- ▶ 24일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면역항암시장 리더로 도약

<2018-12-14> 코스닥 상장을 앞둔 유틸렉스가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청약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면역항암제 개발 선두주자 (주)유틸렉스(대표이사 권병세)는 13~14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종 청약 경쟁률 322.9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반공모 배정 물량 14만 5,400주에 대해 총 4,695만 8,460주의 청약 신청이 몰렸으며, 증거금은 약 1조 1,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틸렉스는 앞서 진행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인 50,000원에 확정한 바 있다.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유틸렉스 파이프라인의 우수성에 기반한다. 유틸렉스는 권병세 대표이사가 세계 최초로 발견한 면역관문활성물질 4-1BB와 AITR을 토대로 항체치료제, 유틸렉스 고유의 T세포치료제, CAR-T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항체치료제 파이프라인 EU102는 킬러 T세포의 암세포 살상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면역작용을 제한하는 조절 T세포를 도움 T세포로 전환해 암세포를 공격케 하는 전례 없는 기작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틸렉스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갈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권병세 유틸렉스 대표이사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유틸렉스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40여 년간 면역치료연구에 몰두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파이프라인의 성공적 라이선스 아웃 및 조기 상용화를 이루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의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틸렉스는 오는 18일 납입을 거쳐 2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